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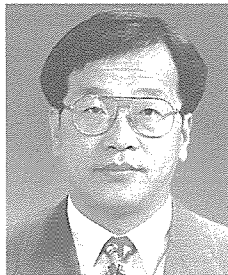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과학과 문화는 별개의 영역인가

1990년대 후반 ‘소칼의 날조’로 불거진 ‘과학전쟁’은 일반 지식인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인지, 또 문화 전반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해 역시 얼마나 편파적인지 말해주는 사건이다. 어떤 점에서 이 사건은 1950년대에 발표된 스노의 ‘두 문화’의 문제에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국내의 전문가들은 두 문화, 즉 과학과 인문학 모두가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이들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지 않았다고 진단하지만, 그 때문에 더욱 더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문화’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와 움직임은 다소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일들이다. 하지만 ‘과학문화’라는 용어의 남용이 자칫 과학과 문화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영역이라는 오해를 기정 사실화하지는 않을까 일말의 우려가 없지 않다. 고등학교부터 강요된 문과 및 이과 구분의 폐단 때문이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과학은 정신적 가치와는 무관하며 일반 문화와 유리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인문학이나 예술과 마찬가지로 과학은 그 자체로 인간적 요소를 내포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학도 인간적 요소 내포한 문화유산

때로는 상징과 비유를 통한 통찰과 과거의 지혜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논란 많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



成映坤
(관동대 문과대 교양과 교수)

책이 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이 야기한 우울한 현안문제들을 덮어두고 잠시 신화의 세계로 거슬러 가보자. 문제가 시작된 곳에 이미 그 해답이 있을 법하기 때문이다.

테바이 왕 오이디푸스의 전설은 여러 측면에서 상징적이다. 신탁에 따라 버려졌다가 무지 중에 아버지인 라이오스를 죽이고 어머니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맞게 되는 이 비극

적 영웅의 이야기는 기원전 5세기에 이미 소포클레스 비극의 주제가 되었고, 19세기 말에는 프로이드에 의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유명한 심리학 용어로 정착되었다. 어린 사내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적의를 품고 어머니에게 성적 욕망을 보인다는 이 이론도 인간에 대한 이해 중 하나로 흥미있지만, 17세기에 프란시스 베이컨은 오이디푸스 전설의 다른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길을 제시하였다.

잘 알고 있듯이 오이디푸스가 테바이에 도착했을 때 �핑크스는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네 개의 다리, 두 개의 다리, 세 개의 다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나”는 수수께끼를 내어 알아맞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오이디푸스는 그 답은 인간으로 어릴 때는 네발로 기고, 커서는 두발로 서며,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는다고 대답하였다. �핑크스는 부끄러운 나머지 죽고 말았고, 그 시체를 당나귀에 싣고 시내로 들어

‘과학문화’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와 움직임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은 정신적 가치와는 무관하며 일반문화와 유리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인문학이나 예술과 마찬가지로 과학은 그 자체로 인간적 요소를 내포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은 오이디푸스는 바로 이 공으로 공적으로 있던 테바이의 왕위와 왕비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베이컨은 「고대인들의 지혜」에서 이 스팅크스 이야기가 과학의 실용적 응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베이컨에 따르면 무지한 사람들에게 경이롭게 보이는 과학은 그 자체로 괴물이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 사실 스팅크스는 많은 형상을 하나로 결합시킨 괴물로 처녀의 얼굴과 목소리, 새의 날개, 사자의 발톱을 지녔다. 스팅크스는 발성의 아름다움과 용이성 때문에 처녀의 얼굴과 목소리를 하고 있다. 국외로 쉽게 전파되는 과학의 특성은 스팅크스의 날개에 비견된다. 같고리 같이 날카로운 발톱은 사람의 정신에 침투하여 꼭 움켜잡는 과학의 공리와 논리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스팅크스를 과학 자체에 비유한 것이 나름대로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베이컨은 산등성이에 있는 스팅크스의 거주지는 과학적 지식이 숭고하고 고귀함에 비유된다고 주장한다. 지식은 높은 곳에서 무지를 내려다보며, 꼭대기가 높을수록 과학이 보는 전망도 넓다. 또 길에 출몰하여 나그네의 행로를 가로막는 점도 삶의 여정에서 고비마다 과학연구를 위한 자료와 필요성을 직면하는 인간 경험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원래 두종류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스팅크스가 제시한 수수께끼에 대한 해석이다. 다소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베이컨에 따르면 스팅크스가 나그네들에게 제시한 다양한 난제와

수수께끼는 원래 뮤즈의 것이었다. 학예를 담당 한 이 여신들과 함께 있는 한 이 문제들은 별로 위협스럽지 않다. 명상과 탐구의 목적이 지적인 욕구에 머무는 한 인간의 정신은 자유롭게 방황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불확실한 결론과 다양한 선택은 어떤 즐거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날에도 예술가들이 누리고 있는 천진난만한 창조 의 즐거움과 지적인 자유는 그들이 여전히 뮤즈를 섬기기 때문이라고 비유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우아한 여신들로부터 스팅크스에게로 이 문제들이 전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사색으로부터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들은 고통스러우나 힘있는 것으로 변모되었다. 스팅크스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 못하면 그것들은 정신을 혼란시키며 산산이 찢어 놓는다. 반면 그것들을 제대로 푼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유명한 모토처럼 자신의 목표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되는 베이컨의 해석에 따르면 스팅크스가 나그네들에게 묻는 수수께끼는 원래 두 종류로, 이는 과학이 자연 및 인간 사회에 갖는 이중적 의미를 상징한다. 첫번째 종류는 사물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그 결과는 사물을 지배하는 왕국이다. 두번째 종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그 보상은 인간을 지배하는 왕국이다. 이 중 오이디푸스가 해결한 수수께끼는 두번째 종류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왕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운명마저도 신탁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오이디푸스 비극의 전체 주제이지만 오이디푸스의 이 경

힘이 문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써, 또 프로이드에 의해 새롭게 해석됨으로써 인간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한 단계 진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은 막상 첫번째 종류의 수수께끼에는 별로 관심없다. '두 문화의 문제'는 바로 이 같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학을 통해 사회의 모든 병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입장이 한쪽의 극단을 이루고, 예술과 도덕 등 정신문화와 절연된 과학의 발달은 새로운 야만주의를 초래한다는 입장이 다른 극단을 이루면서 '두 문화'는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무관심도 이와 관련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자연'이란 말이 인간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주변세계라는 의미로부터 인간이 과학기술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 모든 경험 영역에 대한 총체적 개념이 되면서, 또 가능한 한 자연을 생생하게 묘사한다는 자연철학의 서술방식이 자연 속의 법칙적 연관성을 가능한 한 간명하고 정확하게 집약하는 수학적 대치되면서 정작 과학자들은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자연을 즐기고, 자연 자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는 것은—'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가 '아티스트'라는 용어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라—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과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인문학자들과 예술가들인 것이다.

베이컨 "자연과 문화의 융화"로 해석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에 대한 베이컨의 해석은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보다 추상적으로는 '자연'과 '문화' 사이의 긴장을 인식하고 이것을 융합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같은 노력의 정당성은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의 본성에서 찾아지며, 그것은 결국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존재로

서의 인간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그 각각의 결과가 '과학'과 '인문학'이다—인 것이다.

베이컨은 스�핑크스의 시체를 당나귀에 실었다는 사실이 영웅이나 천재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위안이 된다고 덧붙인다. 아무리 난해한 수수께끼라도 일단 완전히 풀려 공표되면 당나귀 같은 바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학이 무엇인가' 직접 연구하지 않더라도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에 귀 기울이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 과학대중화운동의 정당성도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또 베이컨은 그 해결의 주인공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한다. 발뒤꿈치를 핀으로 찢린 채 버려졌기 때문에 '발이 부은 아이', 즉 오이디푸스는 목발을 짚은 절름발이었다. 다른 나그네들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해결키 위해 건장한 두발로 지나치게 성급하게 나간 반면, 이 결함 때문에 신중했던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작업과 결과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 앞에 겸손하라는 충고와 일맥상통하는 해석이다.

로마의 극작가인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에 따르면 테미스 여신은 스�핑크스가 이렇게 맥없이 당한 것을 보고, 또 한 마리의 짐승을 풀어 테바이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고 한다. 스�핑크스가 괴물이라면 과학 역시 괴물이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 괴물은 꿈꾸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날카로운 발톱은 충분히 위협적이다. 이 두번째 스�핑크스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사물의 본질을, 다시 말해 "자연은 무엇이며, 과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이 질문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이 재앙스런 수수께끼를 시급히 해결토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④7